

# 스피치의 스캐폴딩, 글말교실 일대일 코칭

교육학과 20170663 조주현

스캐폴딩이란 학습자가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수자가 발판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글말교실 일대일 코칭은 나에게 이러한 스캐폴딩과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 나는 김은정 교수님의 ‘자신있게 말하기’ 수업을 수강했고, 이 수업에서 설명스피치 발표 전에 두 번의 일대일 코칭을 받았다.

일대일 코칭을 통해 내가 얻은 것은, 첫째, 나의 설명스피치의 방향성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처음에 선택한 주제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였다. 나는 4년동안 휴학을 한 학생으로서, 후배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오프닝과 클로징이 서로 연결이 부족하다는 피드백을 받았고, 내용이 ‘설득스피치’에 가까우니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조언을 받았다.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항상 다른 이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스피치를 수정하고, 교수님의 조언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명스피치에 녹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로써, 일대일 코칭을 통해 설명스피치에 대한 방향을 정확히 잡을 수 있었다.

둘째, ‘순서화’의 활용을 배운 것이다. 처음에 내가 준비한 스피치는 스토리텔링에 가까워 청중의 관심을 놓칠 수 있으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같은 구조를 활용하여 순서화를 구성하면 좋을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나는 이러한 피드백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 왜냐하면, 내용의 순서화는 청중의 관심을 끄는 “신호”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새로운 내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나는 바로 내용의 순서화를 적용해서 스피치를 수정해보았고, 발표의 구성이 굉장히 탄탄해진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다. 이로써, 청중이 제 발표 내용에 더 잘 집중할 수 있는 설명스피치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의 활용을 배운 것이다. 첫 번째 일대일 코칭이후, 수정한 설명스피치 주제는 ‘이민가는 방법 3가지’였다. 스피치의 방향성과 내용의 순서화가 보완된 점은 좋았지만, 처음 도입부 부분에 나를 표현하는 단어 한 가지를 정하여 임팩트있게 말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따라서 ‘33개국을 여행한 조주현’이라는 표현을 넣음으로써 학생들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스피치를 완성했다. 이러한 피드백은 내 스피치에 ‘금상첨화’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 왜냐하면, 발표 이후, 청중들에게 “초반에 ‘33개국을 여행한 조주현’이라는 키워드가 모두를 집중시켰다.” 등의 좋은 피드백도 얻을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모든 스피치 발표에서 상위권에 올랐기 때문이다.

글말교실 일대일 코칭 이후, 나에게 목표가 생겼다. 다음 주에 곧 어학연수를 갈 예정인데, 이번 글말 코칭에서 배운 스피치 기법을 활용하여 영어로도 설명, 설득스피치 둘 다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여 외국에서 한국을 알리는데 활약하는 것이다. 이로써, 세계에서 탁월한 스피치를 구사하는 국민\*인이 되고 싶다.(1,499자)